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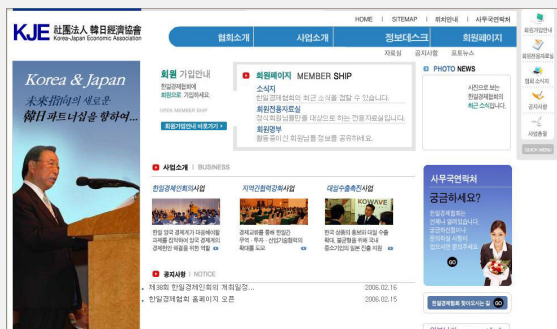
제25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조석래(趙錫來) (주)효성 회장]의 제25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0일(월) 오전 11시에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메랄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김승연(金昇淵) 부회장 [(주)한화 회장], 김희용(金熙

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주) 회장], 박세영(朴世英) 부회장[한국팬트랜드(주)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주) 회장],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주)세아제강 회장], 신영무(辛永茂) 감사[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상 전원이 재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협회의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 한일 양국 경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한일경제인회의 및 산하 전문위원회 개최, 대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각 지역간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교류회의 개최 등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 2월 9일(목) 오전 11시30분에 서울 신라호텔 23층 에프와르에서 회장단회의(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현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가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상근임원 임면(안)이 상정된 바 전원의 찬성으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협회홈페이지 새롭게 오픈

<http://www.kje.or.kr>

그 동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운영되어 왔던 우리협회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협회의 새로운 소식과 각종 정보 및 협회 발간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 한일양국 재계인사 간담회가 동경에서

지난 2월 22일(수) 저녁 6시 30분 일본 도쿄 토요타자동차 키오이(紀尾井)클럽에서 양국 재계인사가 만나 한일FTA 등 현안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강신호(姜信浩) 고문(전경련 회장), 김재철(金在哲) 고문(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일본측에서는 세토 유조(瀬戸 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 오쿠다 히로시(奥田 碩) 경단련 회장, 히라이 카즈히코(平井 克彦) 일한중비즈니스포럼 일본위원회 위원장, 와다 류코(和田 龍幸) 경단련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제6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개최

한일 양국 경제협회는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으로서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보다 젊은 세대로부터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2004년 1월부터 「한일 고교생교류캠프(경제체험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한일 고교생교류캠프는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획해 보고, 국제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체험형 교육 캠프로서 참가 학생과 참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6회 캠프에는 양국의 50개 고등학교 106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한일 혼성 11개 팀으로 나누어 한일 양국의 관광·문화를 판매하는 상품을 기획하여 사업발표회를 가졌으며, 양국 학생들이 숙식을 같이하며 공동 작업을 해 나가면서 협동심과 연대의식, 진정한 우정을 싹틔워 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 발표회」에서는 비즈니스 기획 발표와 CM을 실시하였으며, 누룽지에 팔소, 와사비 등의 일본식 토핑을 첨가하여 만든 한일 융합식품 기획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투토피아팀에서 제안한 한일 양국의 분쟁지역인 독도의 주변에 「공동 쓰레기매립 처리장」을 만들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열로 온천이나 레저시설을 만들어 테마파크 유원지를 조성하여, 50년 후에 공동 이용함으로써 이를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신설 프로그램으로서 「경제인과의 미니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과 양국 경제인과의 대화에 우리 협회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가 참가 하였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가 없었던 경제인들과의 진솔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평소 경제 분야에 대한 듣고 싶었던 내용들을 알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보다 더 많은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7회 캠프는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日本은 지금...

2006年 賃金交渉

<임금 인상 획득을 위한 전술 다양화>

2006년의 상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과 미쯔비시(三菱) 중공업의 노조가 제출한 요구서를 시작으로 금년 봄의 임금 인상 내용은 능력에 따른 급여 부분의 최저 수준 인상과 특정층에 대한 임금 중점 배분 등 다양하다.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고용·임금 제도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연공형(年功型)의 一律 상승을 요구한 2002년 이전과는 크게 변한 풍경이다. 3월 15일 이후, 임금의 <適正 配分> 등을 둘러싼 노사의 논의가 본격화 한다.

<노사 임금 교섭 본격 스타트>

리더役인 금속勞協(IMF.JC) 산하의 철강·자동차·전기 등 주요 노조의 요구안은 대략 5가지 패턴이다. 定期昇給 제도가 남아있는 토요타자동차 등의 노조는 정기승급을 전제로 해서 기본급인상을 요구하는 종래형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소수파의 패턴이 되었다. 일부의 젊은 층을 제외하고 정기승급 제도를 폐지, 성과주의를 도입한 히타찌(日立)제작소 등 電氣계열 대기업에서는, 자격 등급별로 능력과 성과에 의하여 세밀하게 결정되고 있다. 이 임금표를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일을 인상의 측면은 있지만 같은 등급에서도 성과 등에 따라서 승급액의 차이가 있다.

성과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는 회사가 닛산(日産)자동차 이다. 연공 요소를 완전히 배제, 개인성과 등에 따라 획득하는 점수

(포인트) 등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된다. 이 점수에 필요한 자금(임금 인상액)에 대해서 노조는 <1인당 임금 개정 자금 7,000엔>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아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자금(임금 인상액)이 부족한 후지(富士)중공업 노조는 계장급에 한정한 이례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계장급은 생산 현장의 리더역을 담당,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

한편,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과 JFE스틸의 요구는 중·장년층 사원의 사기 향상이 주요 목표. 능력에 따른 <職能給> 부분의 인상분 확대를 요구한다. JFE는 현행의 <56세 이후의 직능급 감액> 폐지를 포함 하는 등 중·장년층에 중점 배분한다. 단카이 세대(團塊世代/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7~1949년의 베이비 붐 때에 태어난 세대)가 대량으로 퇴직하는 <2007年 問題>를 앞두고 베테랑의 의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세대는 이전 <철강 불황>으로 임금이 동결되었던 사정도 배려했었다. 많은 기업에서 경영측은 일을 인상을 의미하는 기본급 인상에 대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노조는 ‘경영측과 임금에 대해서 정면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요구안을 크게 수정했다(자동차 노조 간부).’ 경영측은 임금인상의 움직임을 견제하지만, 심각해져가는 노동력 부족에 임금 억제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노사는 인원 구성과 국제 경쟁력 등 各社 마다 다른 경쟁 조건을 고려하면서 교섭의 합의점을 찾아갈 전망이다.

<토요타 노조, 4년만에 기본급 인상 요구>

노사교섭의 동향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 바로 토요타자동차이다. 2002년 봄에 오쿠다 日經連 회장(당시 토요타 회장)은 <아픔을 동반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여 기본급 인상 제로 회답으로 決着. 좋은 실적에도 기본급 인상 요구조차 하지 않은 <기본급 인상 제로春闘>의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년 봄, 토요타 노조는 4년 만에 기본급 인상 요구를 단행했다. ‘금년 봄에도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가을, 노조 정기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풀생산으로 매우 바쁜 현장의 사기와 일체감의 유지에는 기본급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

사외로부터도 기본급 인상 부활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임금 인상의 방향을 토요타가 만들어 달라’라는 그룹 이외의 노조로부터 유·무형의 압력과 그룹 계열 기업에서 ‘임금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금년 봄은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노조 간부)’으로 요구액은 최저 수준의 1,000엔에 그치지만, 경영측은 ‘토요타가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면 그룹 기업의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진다(임원)’라고 냉담한 자세를 취했다.

<이전은 기본급 인상, 지금은 자금 개선>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은 오랜 기간, 定期昇給과 基本給 引上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기 승급은 임금표에 근거하여 자격과 등급이 같은 1년 선배의 사원이 받고 있던 금액으로 昇給하는 것을 의미 한다. 1년마다 자동적으로 오르는 연공 요소가 강하다.

기본급 인상은 임금표의 수준이 변해, 전체를 인상한다. 生産性 向上分の 노동자 배분과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전에는 기본급 인상이 주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물가 하락과 기업 실적의 저하로 2002년 이후는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졌다. 임금제도 개혁으로 정기 승급을 폐지하거나, 기본급 인상의 개념이 없어진 기업도 있다.

주요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패턴

No	패 턴	특 징	기 업
1	基本給 인상형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기본급 인상으로 일률적 인상	토요타(1천엔), 미쓰비시 중공업, 스미토모 금속(2년분 3천엔)
2	新.일률형	자격과 등급에 대응한 임금표 개정.성과 등으로 격차 발생	히타찌 제작소, 토시바, 미쓰비시전기(2천엔), 혼다(1천엔)
3	傾斜 배분형	임금 인상 총액을 요구. 성과 점수에 따라 배분	닛산자동차(1인당 임금 개정액 7천엔)
4	특정 배분형	일(직무)의 부담이 무거운 특정층에 한정하여 임금 인상	후지중공업(대상은 계장급)
5	중·장년층 중시형	직능급의 인상액을 확대하고, 중·장년층에 집중 배분	신일본제철(2년분 3천엔), JFE스틸(2년분 3천엔과 56세 이상의 직능급 감액 폐지)

* ()내 금액은 1인당 요구액

금년 노조 측이 기본급 인상 대신에 임금 인상의 개념으로서 표명한 것이 <賃金 改善>. 급여 중에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임금>의 인상분의 확대를 요구하고 배분 방법은 각사의 사정에 맡기는 것이 포인트이다.

젊은 사원과 베테랑 등 특정층에 중점 배분하거나 기본임금 중 일(직무)의 내용으로 결정되는 <職務給>과 직무의 수행 능력으로 결정되는 <職能給>에 전액을 충당할 수도 있다. 종래형의 기본급 인상도 배분법의 하나에 포함된다.

<스미모토 상사, 10년차까지는 완전연공제>

住友(스미모토) 상사는 4월부터 입사 후 10년까지는 동기사원의 승급(호봉)이나 임금에 차이를 두지 않는 완전연공제를 도입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인재육성과 능력개발을 확실히 진행시키는 방안의 일환. 능력주의를 일부 수정하는 움직임으로, 2007년 이후 단카이 세대(團塊世代/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7~1949년의 베이비 붐 때에 태어난 세대)의 대량 은퇴를 고려해 젊은 인재를 서서히 육성하려는 기운이 기업에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스미모토 상사가 인사제도를 대폭 재검토하는 것은 6년만의 일. 현재 대졸 사원의 경우에는 6년 후까지는 승격이 같지만, 그 후 관리직 상당의 승격은 동기간에 2년 정도 차이가 난다. 「입사 10년째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인재 개발에 임해야 한다」라는 社内の 여론을 받아들여, 새로운 제도에서는 신입 대졸사원이 모두 입사 11년째에 일제히 관리직 층의 자격으로 승격한다. 그 이후에는 연공 요소를 철폐해, 능력 외에 일의 중요도 등으로 자격에 차이를 두어서 격하하는 경우도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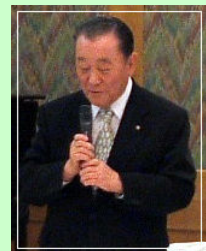
반면, 일단 관리직 상당의 자격을 얻으면 기존의 제도보다도 더 크게 차이가 나도록 하고, 능력주의를 철폐한다. 「젊은 사원은 연공주의, 중견 사원은 능력주의」를 적용해 사원의 능력개발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환경

을 만든다. 평가는 상여에만 반영시킨다. 현재는 같은 자격으로 연간급여격차는 최대 약 2백 4십만엔이지만, 신제도에서는 관리직 급에서 약 3백 6십만엔으로 늘어난다.

능력·성과주의를 수정하고 완화하는 움직임은,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도입했던 시티즌시계가 2005년부터 통상의 직능급과 연봉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제를 이행하면서 사실상 연공서열형 임금으로 돌아왔다. 이 밖에도 젊은 사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숙련하는 기능을 평가하는 직능급이나 연령급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버블 붕괴 후, 실적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을 당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성과주의를 도입했었던 기업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회복과 실적개선으로 기업에 여유가 생겼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장래의 귀중한 전력이 될 젊은 인재를 연공서열형으로 일정년차까지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률적으로 도입해 진행해왔던 성과주의는 업종이나 사품에 맞는 제도로 수정하고, 사내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6. 3>

短 信



샘표식품(주) 박승복 회장은 2월 20일(월) 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식초건강법을 소개하여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85세의 나이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청춘인 박회장의 건강비결은 25년간 마셔온 식초로서, 식후 식초(현미식초 or 사과식초)를 물 3배로 희석시켜 마신다는데 전세계적인 ‘식초 웰빙’ 붐에 힘입어 많은 회원사 관계자들이 실행에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 연재 - 삿포로(札幌) Ⅲ

한일 양국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경제위원회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제38회째 회의가 오는 5월 25일(목)~27일(토)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시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홋카이도지역의 관광명소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과 홋카이도(北海道)의 경제 · 인적교류 현황

□ 무역

2005년 한국과 홋카이도간 무역량은 6.5억불로 99년 이래 무역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단, 04년 홋카이도의 원유수입 감소로 인해 일시 무역량 감소)

- 주요 수출품목 : 석유제품(60%수준), 일반기계, 어개류 및 동 제조품, 전기기기 등
- 주요 수입품목 : 철강, 어개류 및 동 조제품, 종이 및 판지, 일반기계, 전기기기 등

※ 한·홋카이도 교역현황

(단위 : 백만엔(증가율%))

연도	수출		수입		수지	무역총액	
2000	34,170	(21.8)	11,658	(11.0)	22,512	45,828	(19.7)
2001	25,250	(-33.4)	30,650	(122.2)	-5,400	55,900	(8.0)
2002	41,977	(66.2)	29,864	(-1.3)	12,113	71,841	(28.5)
2003	33,966	(-19.0)	33,357	(11.7)	639	67,353	(-6.3)
2004	31,092	(-8.5)	40,959	(22.7)	-9,867	72,051	(6.9)

(자료 : 하코다테 세관)

□ 투자 및 물류 협력

- 홋카이도 기업 8개사가 현재 수산물 가공, SW, 도소매,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진출 우리 기업으로는 대한항공, 진로재팬, 한진관광 및 롯데관광이 있음

※ 대한항공, 인천-치토세 공항간 매일 1회 취항

- 홋카이도 내 각 항구들은 물류비용 경감, 지역 경제발전 등의 차원에서 그간 무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부산과의 정기 항로 개설에 주력하여 현재 道內 5개항 중 4개항이 부산을 컨테이너 물류 거점으로 활용 중임. 또한 최근 홋카이도와 우리나라, 중국 간의 무역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운 물류에 있어 한국-홋카이도간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됨

※ 한-홋카이도 컨테이너 정기항로 현황

- 흥아해운 : 부산-이시카리만 신항-토마코마이-부산(주1회)
- 동명해운 : 부산-니이가타-아키타-토마코마이-부산(주1회)
- 동경선박 : 부산-아키타-토마코마이-부산(주1회)
- 고려해운 : 부산-토마코마이-무로랑-이시카리만 신항-부산(주1회)
- 남성해운 : 부산-니이가타-토마코마이-쿠시로-하찌노헤-부산-광양-청파오-부산(주1회)
부산-토마코마이-하찌노헤-센다이-부산-울산-상하이-부산 (주1회)

□ 인적 교류

<관광객 교류 현황>

- 최근 한국 내에서 하계 휴양지 등으로서 홋카이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이용한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 등 道内の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 '04년 외국인 관광객은 42만7천명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수 1위는 대만으로 208,600명, 그 다음으로 홍콩 82,750명, 한국 관광객은 63,850명이었음
- ※ 한국인 홋카이도 관광객 수는 2002년 41,900명, 2003년 61,200명
- 홋카이도민의 한국 방문자 수는 북해도의 경기침체, 이라크 전쟁, SARS 발생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SARS 발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홋카이도 공립 고교생의 한국 내 단체 수학여행이 2004년부터 재개되는 등 홋카이도민의 한국 방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2000년 홋카이도민 한국 관광객 수 : 45,900명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자매결연 현황>

- 한국-홋카이도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홋카이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삿포로시는 대전광역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편 현재 자매결연 관계인 수원시와 아사히가와시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각 분야에 걸쳐 문화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홋카이도-한국간 4개도시)
키타미(北見)시-진주시, 사마니쵸(様似町)-마산시, 아사히가와(旭川)시-수원시, 아카비라(赤平)시-삼척시

□ 동포·체류자 현황

- 현재 홋카이도 지역에는 재일동포 영주권자 4,990여명, 일반 체류자 730명(유학생 포함) 등 5,720여명의 우리 교포가 거주하고 있음



<자료출처 : 주삿포로총영사관 경제통상정보>

한국에 진출한 홋카이도의 기업 현황

2005. 5. 20 현재

회 사 명	진출지	업 종	대 표 자	자 본 금	진 출 형 태
	년도	소재지	투자금액	종업원수	품 목
(주)에비스상회	강릉	도·소매	石田 勝也	4,800만엔	위탁생산
	2001	하코다테시		10명	냉동오징어·갑오징어 수입
(주)우에사카무역	서울	상사	上坂 一	1,000만엔	현지법인(단독)
	2005	쿠리야마초우	5,000만원 (시장조사단계)	3명	이탈리아의 오토바이메이커 TM 정규수입대리점
兼政藤原水産(주)	서울	도·소매	藤原 厚	1,000만엔	기타
	2000	하코다테시		40명	명태 수출
(주)시스템 케이 www.systemk.co.jp	서울	기타	鳴海 鼓大	33,535만엔	주재원 사무소
	2001	삿포로시		51명	1. 인터넷 기술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2. 최신 기술 이용의 시스템 상품 기획·개발 3.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련 각종 시스템 개발, 서비스의 제공 4. 미디어 관련 디자인 서비스 기획·개발 5. 상기에 관한 SI사업
후우도리무즈(주) www.foodreams.com	서울	제조업	猿渡 肇	8,640만엔	현지법인(합자)
	2004	오타루시		55명	오타루 코리야에 5% 출자 냉동김치 수입
(주)브릭스	서울	도·소매	溝口 文夫	1,000만엔	위탁생산
	1995	아사히카와시		14명	엑세서리, 지갑등의 제조, 수입
마루카이치수산(주) www.marukaichi.co.jp	서울	제조업	片山 登志雄	2,000만엔	현지법인(단독)
	2004	몬베츠시	5,000만원	200명	(계, 명태 등) 수산물의 수출입·판매·도매·가공·소매업
GW 인터내셔널(주) www.gw-i.com	부산	상사	宮本 誠司	1,000만엔	위탁생산
	2000	삿포로시		5명	자동차부품 제조·수입
(주)다테하키 www.datehaki.co.jp	부산	도·소매	守 和彦	3,500만엔	위탁생산
	1982	삿포로시		40명	구두 수입
(주)도우수이 www.dohsui.co.jp	부산	상사	高野 元宏	5,000만엔	기타
	1994	하코다테시		103명	다랑어, 오징어, 새우, 꽁치, 대구, 갈치 등을 각 산지에서 사들여 한국 국내에서 판매
(有)翔洋水産	부산	도·소매	ZLYGOSTEV YURI ALEKSEEVICH	300만엔	현지법인(단독)
	2002	삿포로시		7명	로프등의 어구, 수산 자재 관계의 수출
(有)톤덴FARM www.tonden.com	경기도	제조업	坂谷 信俊	4,000만엔	현지법인(합자)
	1999	에베츠시		150명	햄·소시지 등 제조·판매

● 징기스칸 & 맥주

~ 징기스칸의 원조는 어디가 진짜? ~

지금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향토요리
그러나 그 시작에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



삿포로의 별미는 이름에서부터 야생의 기운이 넘치는 ‘징기스칸’. 철판 위에 비옥한 대지에서 키운 홋카이도산 양고기와 싱싱한 야채를 곁들여 구워먹는 향토음식이 바로 징기스칸이다. 양고기에는 생후 6~9개월 정도 된 새끼 양고기인 ‘라무니쿠’와 성장한 양고기인 ‘마톤’,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생양고기는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간장소스에 찍어먹기도 하고, 간장소스에 재워서 구워먹기도 한다. 홋카이도에서는 음식점은 물론, 벚꽃구경이나 나들이, 캠프에서도 흔하게 먹는 음식이다. 그럼 이 징기스칸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징기스칸이라는 요리는 홋카이도의 향토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요리 이름이기도 하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중국의 징기스칸 요리는 양불고기(烤羊肉-얇게 썬 양고기를 철판이나 석쇠에 놓고 소나무 장작으로 구워 양념을 발라 먹음)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샤브샤브를 징기스칸 요리라고 알고 있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징기스칸이 정벌전쟁 동안 변변히 요리를 해 먹지 못하자 철모를 뒤집어 물을 끓이고 육포와 야채 등 손에 잡히는 재료를 모두 넣어 익혀먹은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징기스칸의 대륙정벌정책에 의해 유럽까지 영토를 넓힌 몽고군은 스위스에 전통요리 풍류를 남겼으며, 임진왜란 때 일본에 건너간 이 요리법은 오늘날의 샤브샤브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식 샤브샤브(火鍋)를 징기스칸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샤브샤브는 국물에 고기와 야채를 익혀 먹는 것이고, 징기스칸은 철판 위에 양고기를 구워먹는 차이가 있다.

그럼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징기스칸 요리를 먹기 시작하였을까? 1918년에 쓰키사무에 종양장(種羊場)이 생겼고, 다음 해에는 학생들이 시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정식 요리로서는 1935년경에 세이요켄 호텔, 1936년에 다누키코지 6초메의 가게 「요코즈나」, 그리고 핫코 학원의 창시자 구리바야시 모토지로 씨가 널리 알렸다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홋카이도 산 양파, 감자, 양고기를 구워 맥주를 마시며 여럿이 즐겁게 나누어 먹는 방식이 홋카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 징기스칸 요리에 맥주가 찰떡궁합! ~

홋카이도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손꼽히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바로 지난 호까지 연재했던 라면, 오늘의 주인공인 징기스칸과 맥주, 그리고 다음 호에 연재할 대게·털게와 유제품이다. 삿포로는 그 깨끗하고 풍부한 자연환경 덕택에 윈헨, 밀워키와 함께 세계 3대 맥주 산지로 꼽힌다. 삿포로가 맥주로 유명한 이유는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홉과 풍부한 물 때문이다. 일본 최고의 맥주 공장으로도 알려진 삿포로 맥주 공장이 있고,

아사히·기린맥주도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본 최초의 맥주 역사는 메이지(明治 : 1868~1912) 9년(1876) ‘삿포로 비루(beer)’의 전신인 ‘삿포로개척사 맥주양조소’에서 시작된다. 홋카이도를 개척하러 온 사람들에게 의해 맥주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2차 대전 당시 맥주 생산 및 판매 금지령이 내리고 전쟁 후에는 주로 미군에게 공급하는 맥주를 만들다가, 그 후 대중화 되었다고 한다. 삿포로에서는 옛 공장 부지를 테마공원화해 이곳의 일부를 맥주 공장, 레스토랑, 박물관 등으로 사용하고, 그 시설을 일반인들을 위해 공개하고 있다. 일본 맥주 120여년의 산 역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맥주 박물관은 예전 삿포로 맥주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바꾼 것으로 구 홋카이도 도청건물과 함께 삿포로의 대표적 메이지시대 건축물이다. 맥주맛은 생산과정에서도 많이 좌우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유통과정에서 맥주맛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주는 만든 즉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맥주맛을 낸다고 한다.



● 삿포로 니싱고텐(鯉御殿 にしんごてん 청어 저택)



청어 저택이란, 일찍이 홋카이도의 서해안에 만들어진 선주의 주택 겸 어업시설(반야)로서 청어잡이로 재산을 모은 선주들이 재력을 겨루어 만든 당시 최고의 기술과 자재를 사용한 목조건축물이다. 에도 시대부터 쇼와 초기까지 지어졌으며, 메이지시대(明治時代)~타이쇼시대(大正時代)에 가장 번성하였다. 당시의 홋카이도가 벽지 상태였음을 감안한다면, 놀랍

도록 뛰어난 호화로움을 자랑한다. 메이지 중기~말기에는 일류의 장인을 초빙하여 일본과 서양의 건축양식을 절묘하게 절충하여 만들었으며 유형에도 민감하였다. 내부는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선주의 주택과 청어 가공장, 2~3층은 고기잡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숙박시설, 청어파수대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많다. 오타루의 긴린소(銀鱗荘) 등 여러 채의 청어 저택이 문화재나 상업 시설로서 복원되고 있다.



會員 動靜

■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은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한기업 회장)과 함께 2월 9일 전경련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과정에 재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기로 하는 등 전경련의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 지난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길 특별 전세기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협회 고문인 경제4단체장이 동승했다. 한편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지성하 삼성물산 사장, 최재국 현대자동차 사장,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 등이 동행했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3월 14일 한국능률협회 선정 '제38회 한국의 경영자 상'을 수상했다. '윤리경영'을 통해 그룹을 재계 10위권의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월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1976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며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등 170여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했다.



■ 최용권(崔用權) 부회장, 우성문화재단 이사장(삼한기업 회장)은 3월 9일 재단사무실에서 중·고·대학생 등 134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1억 9,969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오는 4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합병으로 탄생하는 통합 신한은행 수장에 신상훈 현 신한은행장이 내정됐다. 신 행장은 금융권에선 입지전적의 인물로 꼽힌다. 비서실 과장,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 2003년 신한은행장에 올랐다.

■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2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세철 금호타이어 대표를 제2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 고분자학과를 졸업한 오세철 회장은 2009년 2월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더페이스샵코리아가 창사 2년만인 지난해 1500억원대의 매출액을 올리며 태평양, LG 생활건강에 이어 화장품 업계 3위로 급부상했다. 한편 2월 13일 일본 요코하마에 '더페이스샵' 3호 매장을 연데 이어 15일 오사카에 4호 매장을 잇달아 열었다. 오사카와 요코하마지역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숍이 입점하기는 처음이다.

■ 금번에 아래 기업이 우리협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리따산업■

대표자 : 최해숙 감사

Tel.02-540-4728 Fax.02-540-7448

■THE FACESHOP CO.,LTD.■

<http://www.thefaceshop.com>

대표자 : 황호균 부회장

Tel.02-2087-6501 Fax.02-2087-6412

☞ 2006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17(화)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한국 서울
2	8(월)~10(수)	제8회 한·일(큐슈)산업기술교류미션 유치	한국 서울
	9(화)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9(화)~13(월)	제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도쿄
	17(금)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의 업무협약 개최	한국 서울
	17(금)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개최	한국 서울
	20(월)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 서울
	22(수)	한일재계인사 간담회 개최	일본 도쿄
4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17(월)~29(토)	경영관리연수 파견(20명)	일본 도쿄
5	25(목)~27(토)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일본 삿포로
	5월~9월	생산성단기컨설팅(고문매칭) 실시(10사)	한국
6	21(수)~23(금)	한일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 파견(20사)	일본 도쿄
	25(일)~7/8(토)	품질관리연수 파견(30명)	일본 오이시
7	11(화)~13(목)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사가현
	23(일)~29(토)	차세대경영자교류단 파견(15명)	일본 동경
	24(월)~11/11(토)	지식산업기술연수 파견(30명, 111일간)	일본
8		제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유치	한국 서울
9	5(화)~9(토)	2006 NEAR IN 도야마 전시회 파견(10사)	일본 도야마
	12(화)~16(토)	전자기술상담회 파견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19(화)~22(금)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중국 日照市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10	18(수)~21(토)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후쿠이현
	25(수)~29(일)	아시아산업기술페어 전시회 파견(20사)	일본 기타큐슈
	31(화)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 유치(15사)	한국 서울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	중국
11	1(수)	한일산업협력특별 세미나 개최	한국 서울
	10(금)	지식산업기술연수 수료식 & 보고회 개최	일본
	17(금)	생산성향상단기컨설팅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 서울
	27(월)~12/1(금)	산업기술교류미션 파견(30명)	일본 도쿄 등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12	10(일)~23(토)	이공계산업기술캠프 파견(12명)	일본 나고야 등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한국 서울